◀네덜란드 르네 보스만의 '판토마임'

'착한사람 김삼봉'▶

전국 광대들 목포서 난장 벌인다

극단 갯돌 25일까지 '마당페스티벌'… 국내외 60여개 공연팀 참가

'광대들 목포서 난장을 벌이다.'

목포에서 활동하는 극단 '갯돌'은 10여년 전부터 전국의 광대들을 초청, 축제를 열어왔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해외 초청팀도 늘어 매년 여름 목포는 흥이 넘쳐났다.

지난해까지 '전국우수 마당극 제전'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진행했던 갯돌은 꼭 10년을 맞는 올해부터 '목포 마당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22일 목포 유달산 예술촌과 유달산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막을 연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60여개 공연팀이 참여, 25일까지 다양한 공연을 풀어놓는다.

'마당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 행사의 공식 초청작은 무용, 마당극, 음악, 서커스, 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극단 갯돌의 마당극 '추자씨 어디가세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무브먼트 당당의 춤극 '모는 집으로 가는 길', 예술공장 두레의 '착한 사람 김삼봉', 민속여행의 '진도 소포리 사람들' 등이 주 프로그램이다.

해외 공식 초청작들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일본 마임이스트 고지마야와 하도리가 유쾌한 판토마임을 선보이며 네덜란드 르네 보스만의 '판토마임' 프랑스인 셀린바케의 무용극, 오쿠다 마사시의 '환상의 비누방울쇼', 미국인 그레고의 '꼭두각시 음악퍼포먼스'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기획공연에서는 서울 대학로에서 롱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순웅의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가 특별 상연되며 '문관수의 마당극 품바품바', 동요부르는 어른 모임 '철부지'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또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이 참여해 예술로 소통하는 '신시네트워크 공연'도 쏠쏠한 재미를 전해준다.

목포 시내 차 안다니는 거리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이스케의 '서커스쇼', '마당 아티스트 선발전', '부토 거리굿' 등 다양한 길거리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 10주년 기념토론회, 특별 전시회행사, 체험 행사 등도 진행하며 소외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http : //www.mtfm.net/v2010

문의 061-243-97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판화로 되살아난 진양욱

예향화랑 내달 27일까지 판화전

'금수강산' '마이산' 등 17점 선봬

"회화란 대상의 표피를 지나 무한한 심층을 향해 파고들어야 작가 나름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최고의 색채화가로 손꼽히는 고(故) 진양욱(1932~1984년) 화백이 1982년 서울 개인전을 마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말이다. 작가의 열정을 강조했던 진 화백의 예술 혼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전시회가 마련된다.

광주 예향화랑은 23일~8월27일까지 진 화백의 작품을 판화로 옮겨 선보이는 '진양욱 판화'전을 연다.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과 호암미술관 등지에 소장돼 있어 지역 관람객의 감상 기회가 적었던 '금수강산' '마이산' '대학촌부근' '늦가을' '무등산' '해촌' 등 그의 대표작 17점의 판화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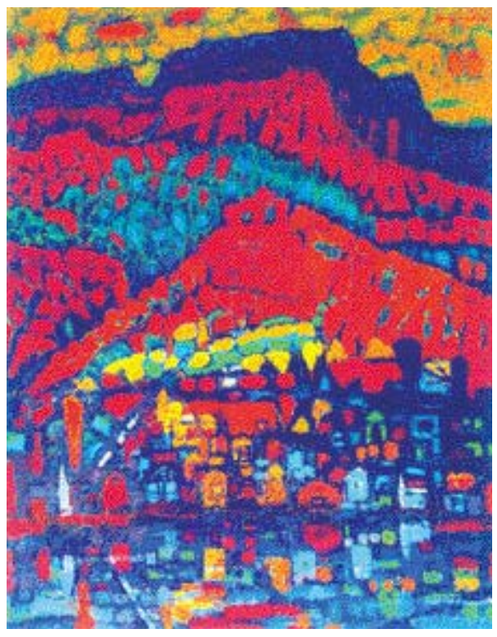
'금수강산'은 산과 초가 등 사물의 윤곽을 굵은 선으로 표현한 뒤 다양한 색채로 마무리한 작품이며, 다양한 색의 사용과 조화가 돋보이는 명작이다. 또 바닷물에 비친 어촌의 풍경을 환상적인 색감으로 마무리한 '해촌' 등도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특히 지난 1970년대의 남도인상주의 기법을 담은 구상 작품에서부터 1980년대 색을 강조한 작품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초록과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으로 풍부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또 물감이 묻은 스펀지로 찍어 완성한 그림은 물감의 번지는 효과를 통해 온화한 풍경을 담고 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그는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1963년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했다. 환상적인 색채와 강렬한 원색을 가미,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영역을 만들어 냈다는 평을 받은 작가다.

전남미술협회장, 올림픽추진위 홍보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1984년 타계했다. 문의 062-225-00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해촌'

시안갤러리 올해의 작가

윤종호 첫 개인전

시안갤러리는 8월8일까지 '시안갤러리 2010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 된 윤종호의 첫 개인전을 연다.

'무의식의 출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꽃과 별을 소재로 남성성 속에 숨은 여성성을 형상화 한 윤씨의 조각품을 선보인다. 인간의 욕망을 사회적 형식에 감추지 않고 조형적 언어로 여실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윤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대학원 조소과를 수료한 뒤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남성+여성+그리고… 꽃이 되다'

한편 '시안갤러리 올해의 작가'는 지역의 젊은 작가를 선정해 창작지원금 지원해주고, 전시회를 후원해주는 상이다. 문의 062-570-23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추억속 옛 명화를 다시 만나다

광주극장 29일 대부· 더티댄싱 개봉

'대부', '더티댄싱' 등 추억 속 옛 명화를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광주극장은 오는 29일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명작 '대부'(1972)와 패트릭 스웨이지 주연의 '더티댄싱'(1988)을 개봉한다.

영국 엠파이어 선정 최고의 영화,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100대 영화 등 찬사가 쏟아졌던 '대부'는 개봉 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세웠던 흥행 기록을 깨고 8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탈리아 시실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 밑바닥부터 시작해 마피아 두목의 자리까지 오른 돈 꼴레오네(말론 브란도 역)의 가족과 그 일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73년 제45회 아카데미에선 11개 부문 노미네이트, 남우주연상, 작품상, 각본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에서는 지난 1977년 5월 25일 극장에서 개봉했으며 33년 만에 디지털 리마스트링 버전으로 다시 상영된다.

'더티 댄싱'은 '플래시 댄스'(1983)를 잇는 댄스 영화로 지난해 숨진 페트릭 스웨이즈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

골든 글러브 남녀 주연상에 후보로 지명되는가 하면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부른 주제곡 'The Time of My Life'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속 문학과 1박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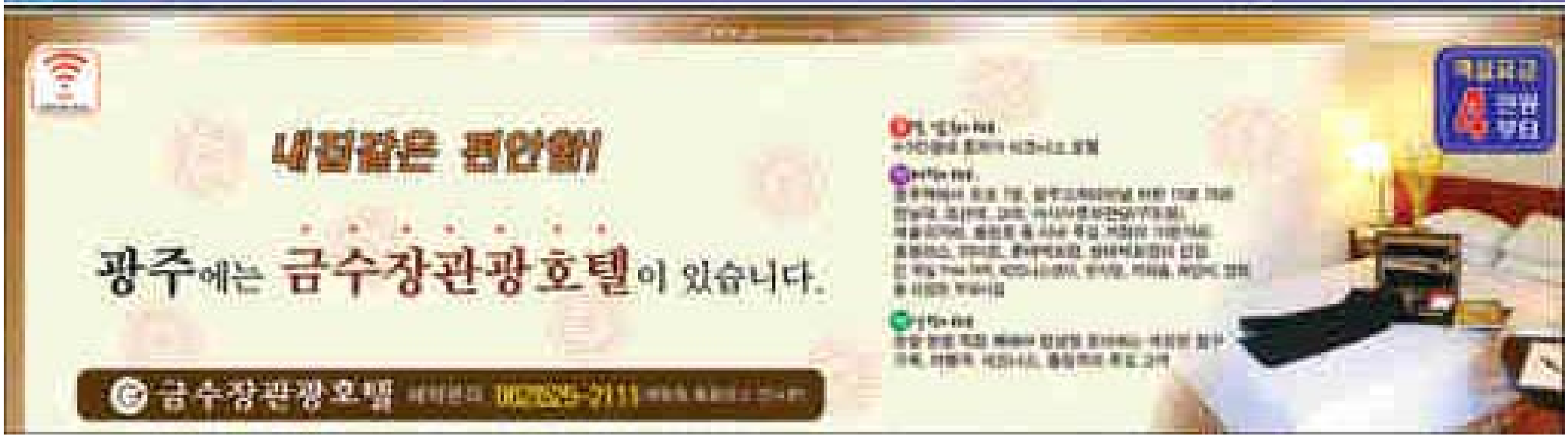
29~30일 섬진강 여름문학학교

'자연속 문학과 함께하는 1박 2일'

곡성군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고재종)가 주관하는 '제12회 섬진강 여름문학학교'가 오는 29~30일 곡성군 청소년수련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여름문학학교는 작가와의 만남, 시낭송, 공연 등이 열리며 작가가 알려주는 좋은 글쓰기 방법 강연, 백일장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29일 첫날 문학강좌에는 소월시문학상 수상자로 '벌레의 집은 아늑하다' 등을 낸 이정록 시인이 초청돼 문학과 삶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난타와 비보이 등 포엠 콘서트를 펼치며 시인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모듬활동을 통해 예술적 창의력을 키우게 된다.

둘째날 30일에는 소설가 송은일씨가 좋은 글쓰기의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려주며 참가자를 대상으로하는 백일장대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1-363-2011, 062-523-78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